

# 서남권 MOT 대학 간 디지털 전환 적극 대응

(기술경영)

전북대, 충북대·호서대와 오늘 온라인 세미나

지역 기업 간 기술사업화 협력 등 방안 모색

전북대학교(총장 양오봉)는 19일 충북대학교(총장 강일구)와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와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서남권 3개 대학과 기술경영(이하 MOT) 대학원 및 패밀리 기업들이 참석해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정책 사업 동향 전북대 IS PARK 김동환 연구소장 △5G 모바일 엣지컴퓨팅 기반 지능형 제조 서비스 방안(연술루현 권재욱 이사) △디지털 혁신의 중심 반도체(과화기술정책연구원 이현익 부연구위원) △디지털 전환 지자체 접근방향(전북디지털융합

센터 최상호 센터장) 등에 대한 특강을 통해 지역 기업 간 기술사업화 협력과 산업 지능화 발전 방안을 모색한다. 전북대학교 MOT 사업단 배준수 단장, 충북대학교 MOT 사업단 김지대 단장과 호서대학교 MOT 사업단 박승범 단장을 비롯해 전북과 충남·충북 지역의 MOT 참여기업과 석·박사생 및 졸업생 등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이 4회에 걸쳐 세미나를 갖는다. 앞서 서남권 3개 대학은 공동교과 운영, 학점 교류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협약에 따라 전북 및 충청 지역의

기업 성장을 주도한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및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해 기업에 매출 증대, R&D 자금 확보 등 다양한 성과를 창출하고 있다. 앞으로도 디지털 전환 산업 지능화를 통한 구조 전환하기 위해 기술사업화 모델을 확대하고자 MOT 관련학과 및 지역 기업, 연구소와 함께 지능형 제조, 스마트 바이오, ICT 활용 융합·혁신 등 분야별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산업 지능화 사업화과 함께 혁신 기술 사업화에 협력키로 했다. 배준수 단장은 "전 세계가 인공지능(AD), ICT 융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기존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이 중소기업에 적용돼 확산해 나갈 수 있도록 산학협력 모델을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18일 스타센터 일대에서 사회봉사 협의체와 함께 친환경 화분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사진=전주대학교 제공)

## “환경보호 직접 체험하고... 기부 보람도 느끼고...”

전주대, 사회봉사 협의체와 친환경 화분 만들기 행사

전주대학교 사회봉사센터는 18일 스타센터 일대에서 사회봉사 협의체와 함께 친환경 화분 만들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사회봉사센터는 지난 3년간 사회봉사 협의체를 결성, 지역사회 기여 및 대학의 사회적 책무를 위한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사회봉사 협의체는 매년 농촌 봉사활동, 부스 체험 봉사활동, 손뜨개 목도리 나눔 봉사활동, 연탄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에 필요한 봉사활동을 펼치며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역 사회 기관들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번에 진행된 친환경 화분 만들기 봉사활동은 자연분해가 되는 친환경 소재를 활용해 화분을 만들어 국내외 아동 및 목거 어르신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행사 진행 자원봉사자로 참여한 역사문화콘텐츠학과 소지윤(3학년) 학생은 "환경 보호에 대해 생각하면서 직

접 체험도 하고 기부의 보람도 느낄 수 있었다"며, "많은 학생들이 와서 경험해 보면 좋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행사를 주관한 선교봉사처 김문택 처장(신학과정배전학과 교수)은 "이번 행사를 통해 우리 학생들이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동시에, 봉사 기부의 가치를 체험함으로써 보다 나은 시민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이러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기전대, '2023학년도 꿈을 찍는 사진관' 운영

전주기전대학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센터장 조덕현)는 지난 17일 '2023학년도 꿈을 찍는 기전 사진관' 프로그램을 운영했다고 밝혔다. 이 프로그램은 취업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구직활동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20명의 학생들이 참여, 취업에 필요한 사진촬영·보정 및 인화, 면접 복장 및 헤어스타일 합성 등을 무료로 제공했다. /정은성 기자

## 2022 개정 교육과정 이해력 향상 도모

도교육청, 중학교 교원 대상 연수... 학교자율시간 운영 등 안내

2022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교원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에 따르면 18일 창조나래(별관) 시청각실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현장 이해 제고를 위한 중학교 교원 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연수는 중학교 교감 및 교육과정 업무담당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정 업무담당 장학사 등 총 360여 명을 대상으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에 대한 중학교 교원들의 이해를 높이고, 학교자율시간에 운영할 새로운 선택 교과목 만들기 등에 대한 학교 현장의 준비를 돕기 위함이다.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24년 초등학교 1·2학년, 2025년 중·고등학교 1학년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면 적용된다. 특히 학교자율시간은 지역과 연계하

거나 다양하고 특색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편성·운영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해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돼 있는 교과목 외에 새로운 선택 과목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자율시간에 개설되는 과목의 내용은 지역과 학교의 여건 및 학생의 필요에 따라 학교가 결정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연간 34주를 기준으로 한 교과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시간의 학기별 1주의 수업 시간을 확보해 운영한다. 유효선 중등교육과정은 "이번 연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자리"라면서 "이를 위해 교원 연수 및 현장 컨설팅, 교육과정 자료개발,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마련 등 다양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수의대, 개교 72주년 기념 학술제

오늘부터 20일까지 학생 진로특강·대학원생 학술발표 등 다채

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학장 박상열)은 19~20일 구성원 모두가 참여하는 개교 72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익산 특성화캠퍼스 도서관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개교 72주년 기념 학술제는 첫날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의 날 행사를 비롯해 대학원생들의 연구역량을 엿볼 수 있는 학술발표 경진대회 등 다채롭게 열린다. 먼저 학생들을 위한 진로특강의 날 행사에서는 수의학 분야에서 현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초청해 학생들이 졸업 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직업군을 소개하는 등 현장의 생생한 정보를 전하는 시간을 갖는다. 첫날 오후 5시부터는 개교 72주년 학술제 공식 행사로 학술상과 공모상, 우수학생상, 우수연구자상에 대한 시상식과 함께 발전기금 기증식, 학생들을 위한 스타디카페인 'L·L·비'를 기부자의 뜻에 따라 'L·L·비'로 이름 붙였다. VMS 센터는 최목(95년 졸업)·김송규(95년 졸업)·고진형(2022년 졸업) 동문의 기부금으로 조성됐다. 이어 이튿날 오후 1시부터 야생동물생태체험관에서는 전북대 생체안정성연구소, Zoonosis 핵심연구지원센터 등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학술 심포지엄도 열린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감염병 연구라는 주제로 일본과 대만, 홍콩의 수의학 분야 석학들이 초청돼 최

신 연구 동향을 공유한다. 한편, 1961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문을 연 전북대 수의대는 1955년 39명의 첫 수의사를 배출한 이후 학사 2184명, 석사 624명, 박사 233명을 배출해 국내 수의학계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다. 더불어 2015년 익산 특성화캠퍼스로 이전한 이후 전국 최대 동물병원 건립, 아시아 최대의 인공공통전염병연구소 건립 등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영국의 고등교육평가 기관 Q&S에서 실시한 대학평가에서 세계 100대 수의과대학에 진입하기도 했다. 현재 250억원 규모의 '동물의약품 효능 평가원'을 유치해 인공공통전염병연구소 옆에 건립하고 있으며, 2021년에 유치한 210억 원 규모의 '실용동물센터'를 통해 교육서비스와 연구 환경 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은성 기자

## 직업계고 정보 '한자리에'

도교육청, 전주평화의전당서 '기능인재하마당'

직업계고에 대한 정보를 한 자리에 얻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18일 전주평화의전당에서 2023년 제9회 직업계고 기능인재하마당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도교육청에 따르면 기능인재하마당은 직업교육 비전 제시를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직업교육활동 체험으로 중학생 및 학부모에게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를 제공하고자 해마다 열고 있다. 이번에는 △직업계고 학과체험 및 진로상담 △명사특강 및 직업계고 설명회 △직업계고 우리장터 등으로 운

영됐다. 이날 도내 30개 직업계고가 부스 운영에 참여해 중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교육과정을 안내하고, 다양한 체험을 제공했다. 특히 명사특강에는 방송인 과정은 작가가 강사로 나섰다. 박 작가는 특별한 나만의 특별한 진로 구축하기'를 주제로 중학생들에게 진로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했다. 이외에도 직업계고 미니 설명회, 교육과정 전시 직업계고 우리 장터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직업계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진로 선택의 폭을 열어주는 시간이 됐다. /정은성 기자



나눔스페이스, 엠프로스와 협약

(주)나눔스페이스(대표 김민걸)가 (주)엠프로스와 수면무호흡 모니터링을 적용한 비대면 임상시험 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비대면 임상시험 관련 분야 공동연구 및 비대면 임상시험 효율화를 위한 의료기기 개발 등에 협력키로 했다. 구체적으로 비대면 임상시험에서의 수면무호흡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을 위한 장비, 기술 및 전문인력을 교류하고, 수면장애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임상시험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시스템 구축을 통한 데이터 활용 촉진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을 대상으로 수면장애 라이브러리 주요 항목의 메타·집계 데이터 확보를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전주비전대, 목포과학대와 협약

전주비전대학 혁신사업단(단장 박용균)은 지난 17일 목포과학대학 혁신사업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혁신일반재정지원 프로그램 공동연구 및 교육과정 공동개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동 정책 연구 △실용실습 교육용 기자재 활용협조 등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목포과학대에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전주비전대학 박용균 혁신지원사업단장과 조준환 혁신지원사업팀장, 안효성 기획예산팀장, 목포과학대학 박호현 혁신지원사업팀장, 방인후 팀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박용균 단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혁신사업에 따른 대학의 역할, 그리고 지원 방향 등에 대해 보다 현장감 있는 의견을 나눈 소중한 시간이었다"며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지역 정주형 취·창업 인력을 양성하고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과학대 박호현 혁신지원사업단장은 "대학 내 모든 구성원이 사업단을 중심으로 적극 소통해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답했다. /정은성 기자

## 바람직한 식생활 공감대 형성

도교육청, 내달 17일까지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 접수

전라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 행복한 학교급식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바람직한 식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학교급식을 통한 배려와 감사, 환경보호 실천 의지를 고취하고자 기획됐다. 이에 따르면 공모 분야는 그림일기(초 1~3학년), 포스터(초 4~6학년/중·고생), 슬로건(초·중·고생 및 교직원), 캠페인 사진(초·중·고생 및 교직원 단체전), UCC(초·중·고생 및 교직원, 단체전) 등 5개 분야다. 공모 주제는 건강한 나를 위한 '영양급식',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생태급식', 모두 함께하는 '행복급식', 위생과 질서를 지키는 '안전급식' 등으로 구분됐다. 응모는 11월 17일까지 우편(전주시 완산구 흥산로 111, 전북도교육청 문예체건강과 학교급식팀) 또는 이메일(jukaksu@jeedu.kr)로 접수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각 분야별로 대상 1편, 최우수 2편, 우수 3편, 장려 10편을 선정해 교육감 상 및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또한 수상작은 바른 식생활 교육 및 학교급식 홍보 전시 등에 활용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교육청 홈페이지(http://www.je.go.kr) 또는 블로그(http://blog.naver.com/jesok)에서 확인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전북대 과학영재교육원,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전북대학교 과학영재교육원(원장 손홍찬)은 2024학년도 초·중등 심화과정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초등심화과정은 수학과 과학 융합 분야에 각 17명을 중등심화과정은 수학과 물리, 화학, 생물, 지구, 정보(SW) 분야에 각 15명을 선발한다. 일반전형 이외에도 정일 외로 사회통합대상자전형 등을 통해 각 분야별 3명씩 뽑을 예정이다. 올해는 대학부설 과학영재교육원 공동 온라인 선교육과정 또는 전북과학영재기초교육인 오프라인 선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을 일반전형에서 각 분야별 3명씩 우선 선발한다. /정은성 기자

원서는 오는 25일부터 11월 3일까지 과학영재교육원 선발사이트(http://select.gifted.ac.kr)를 통해 할 수 있다. 지원 자격은 초등심화과정의 경우 전라북도내 소재한 초등학교 5학년 재학생이며, 중등심화과정은 전라북도내 소재한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어야 한다. 특히 해당 학교 담당교사의 추천서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전형 후 11월 19일 창의적문제해결능력검사인 1차 전형으로 2배수를 선발하고, 12월 2일 2차 심층면접을 통해 최종 교육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